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09호
10월 29일
2022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6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1차 정기총회 개최

예배회복·바른 복음전파, 종교다원주의·동성애 반대



신임 총회장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1차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17일 10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 (엡 5:16)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총회는 이날 세계정세의 위기 속에 국가안보와 핵 폐기 평화정착, 감염병 이후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 한국교회에 갈수록 심화되는 무종교화 추세 등 종교다원주의의 사상과 혼란주의를 비롯,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 총회장 신재정 목사의 인사말, 정책위 부위원장 김상용 목사의 대표기도, 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의 성경봉독, 김은영 솔리스트의 찬양,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히 2:34 말씀을 본문으로 '이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값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을 배격하는 자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뿐 아니라 복음을 혼란케 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하나님 유혹이나 시험이나 핍박이라도 복음에 신앙에서 흔들리 내버려두지 말라'는 경고와 경계에 일생동안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귀중한 구원의 은사를 영접하느라 될 것'을 역설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임종목 목사(선임총회장), 김인환 목사(선임총회장)가 각각 주례별 기도를 인도했다.

교단 총회장 신재정 목사는 지난 한 회기동안 교단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교단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총회장 신재정 목사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와 총

무 이경진 목사, 서기 정영진 목사, 재무 한순남 목사, 회계 김건수 목사는 총회장 신재정 목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30년 근속자에 대한 근속패는 오영재, 박상용, 김순기, 이진규, 권원식, 김성경, 김병목, 정윤기, 홍용연, 윤기석, 오승욱, 정진식, 조길수, 홍수남, 심현일, 오병용, 윤병하, 박재민, 최동순, 김석영, 신동원, 이근수, 이상석, 이은승, 강희문, 김영준, 이규아 목사 등 27명이 받았으며 전국시도연합회장 김갑수 사모에게는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이어 교단회계 김건수 목사의 현금기도, 정영환, 김성혜 솔리스트의 찬양, 교단 서기 정영진 목사의 광고, 정책위원회 고분 박영찬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끝으로 이어진 2부 회무처리에서는 임원선거를 통해 교단 헌법 제 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해 총회장에 김병목 목사, 부총회장에 김영준 목사, 총무에 정진규 목사, 서기에 임형순 목사, 재

무에 백영자 목사, 회계에 조진남 목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신임총회장 김병목 목사(금산순복음교회)는 당선 인사말에서 '우리 교단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직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회원들의 성원과 기도를 당부했다.

신임총회장 김병목 목사 주재로 계속된 총회는 71차 총회 예산안 심의 및 결의, 각 시도별 연합회장 자택인준 및 교단발전위원회 결의 등을 결의하고 제71차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제71차 교단 총회에서는 한국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단 사상에 대한 불감증을 올바른 복음전파로 타파해 나갈 것과 감염병 유행 후 교회의 예배회복을 위해, 올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창조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추진 저지와 동성애 반대, 감염병에 대한 바른 대처, 진요하게 한국 사회에 침투해오는 종교다원주의, 이슬람의 세력화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뜻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공로패 - 총회장 신재정 목사



공로패 -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



공로패 - 총무 이경진 목사



공로패 - 서기 정영진 목사



공로패 - 재무 한순남 목사



공로패 - 회계 김건수 목사

북한 핵폐기와 차별금지법제정 저지 위해 기도

제71차 총회 제1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1차 총회 제1회 임원회가 지난 10월 24일(월)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회담임 조용목 목사에게서 각각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중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기도,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수 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유월의 교회들이 텅 빈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 영향이 한국교회에까지 끼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은 말씀 중심의 교단으로 종교다원주의와 혼란주의에 빠진 한국교회를 바로세우고 오직 성경중심의 교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공로패 회에 들어가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원정책,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정진규 목사의 총무보고 사향으로 이어졌다.

정진규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지난 10월 17일 정기총회와 3주반에 은혜 가운데 개최되었음과 많은 교회들이 후원금을 보내준 내역을 보고했다. 이어 제1회 전국시도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산회장에 신명희 사모(부경순복음교회)가 선임되었음을 알렸다.

이어 재무 백영자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진남 목



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교회행정운영 보고사항과 기타사항으로 제71차 총회장 김병목 목사 취임예배를 11월 7일(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드리기로 했음을 보고했다.

임원들은 한시름을 통해 평등을 받기로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제정 저지위해, 북한의 핵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감염병재유행을 막고 감염병이 종식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기도로 문연다”

세계총 10주년, 파리·브뤼셀·베를린서 자유·평화통일 기도회 진행

사단법인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계총,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 선교세미나, 선교대회를 각각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0월 12일(수)부터 19일(수)까지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에서 제26차, 제27차, 제28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를 개최하고 세계총 1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12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베리칼레교회(이성구 목사)에서 세계총 임원들과 선교사, 성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 (엡 1:10)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6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에서는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박용관 목사(세계총 프랑스 지회장)의 환영사, 김승현 목사(유령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대회사 등이 있었다.

박용관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총 10주년 선교대회가 잘 마쳐져 되고 통일 기도



회가 파리에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기도회가 유일한 본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함께 기도할 때 38선의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회를 주관한 김승현 목사는 “이 도사가 영적으로 어떤가 질문하면 해답이 없는 문회가 꽃피고 있는 소동과 고교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기를 소원했다.

이어 성두원 목사(세계총 공동회장의 대표기도, 정병희 장로(세계총 유령기사의 성경봉독, 지구촌선교회 위임장신도단장 오주윤 목사의 특별찬양에 이어 신병중 목사(세계총 자문대표회장)가 대회사 마무리하여 호수이 10장 12-14절”라는 제의의 말씀을 전했다.

서울신대 STU콘퍼런스 개최

“건강한 교회개혁, 팬데믹 시대 대안”

서울신대학교총장 황태형 박사가 10월 17-18일 백운기기념관에서 STU콘퍼런스를 열고 한국사회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개혁 모델을 제시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선교적 개혁이란 주

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교회성장대원(원장 최동구 교수)이 주최했으며 80여 명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참석했다. 무려 3년 가까이 전방위 이론을 제시하고 현장 목회자들이 개혁 사례를 발표하며 선교적 교회개혁

을 꿈꾸는 사람들이 실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혁 사례로 고신과 목사(현역종교)는 과거 밀양교회 담임으로 사역할 당시 이뤄졌던 분할개혁을 소개했다. 당시 밀양교회는 교인 400여 명과 불교한 마을의 중흥교회였지만 10여 명의 교인들을 제외하면 주 목을 받은 바 있다.

고 목사는 이번 분할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로 “전교인의 참여”를 들었다. 파송받은 빗명의 성도들만 구분하지 말고 1년, 2년, 3년 파송 등 파송선교사들을 포함하고 남는 교인들은 기도로 후원하도록 모든 교인들이 파송에 동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언론협회, 협약

한국교회 선한 사역 전하는데 힘 모으기로

충남남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충남기총, 총회장 안준호 목사)와 한국기독언론협회(이하 한기언협 회장 노준재 목사)가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과 활동을 위해 9월 29일 협약이 체결됐다.

금산성교회(홍충훈 목사)에서 충남남도기독교총연합회에 소속된 15개 시·군·구 실행위원의 총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을 통해 양 협회는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남기총은 소속된 시·군 기독교총연합회의 선한 사역을 한기언협의 뉴스를 통해 전달하고, 한기언협은 회원사의 인터넷과 지면신



문을 통해 뉴스를 게재해 주겠다고. 안준호 총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독

교인들에게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드러나지 않은 선한 사역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나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 주어 그들로 더 회개할 행성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나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는 말씀을 이루는 여사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언론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회원사로는 교회연합신문, 기독교신문, 한국교회공보, 크리스찬투데이, 월드미션신문, 크리스찬신문, 목양신문, 서울대일, 국제기독교신문, 한국기독교신문, 개령신문, 복음신문, 총회신문, CDN, 하이원스, 팔라디움스, 총회신문, 기독교일보 등이 활동하고 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 11월 5일 개최

서울 광화문·시청 광장서 1부 퍼레이드, 2부 음악회 진행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소통과 화합의 문화축제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11월 5일 오후 3시 개최된다.

기독교연합 대표기관인 (사)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류영민 목사, 이하 (한교총) 주회회장, CTS기독교TV 회장 김정철, 사장 최현덕, 이하 CTS 주관하며, 서울특별시와 백석대학교·백석예술대학교가 후원해 평화문화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펼쳐지는 이번 퍼레이드는 총 6개 단체와 호수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참가, 약 1만 여명이 오프라인 현장에 참여할 전망이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



이날 기자회견에서 CTS 문화사업본부장 조종우 본부장, 허영환 제작 본부장 등이 나와 행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CTS 김정철 회장은 “2022 코리아 퍼레이드”를 통해 평화문광이 문화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전 세계에 참여하는 자리

로써 “코로나 팬데믹으로 삶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행사를 한류를 상징하는 K-퍼레이드 문화가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밝혔다.

이어 신병중 목사(한교총 사무총장)는 인사말에서 “한교총과 CTS가 서로 문화적인 사업에 협력해 3년 만에 대만 행사를 치러지는 만큼 다음세대에 좋은 전승으로 물려주고, 평화문광이 지구촌 모든 세대가 소통하며 즐기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의 사명은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 정기노회”



양정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은평노회 116차 정기노회를 평안교회에서 개최했다.

회무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양정성 목사는 막 16:14-20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과 축복”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

로 남긴 마지막 말씀 중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세 마디 말씀이 있다.

첫째,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주신 사명이다. 둘째, “구원을 받은 것이냐”라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은 최상의 축복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간 선배들의 신앙을 본 받아야 한다. 셋째,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다. 구원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게는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받은 최대의 사명은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최대의 축복은 구원을 얻는 것임이 분명하다. 복된 사랑자를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목사 안수식 후 회무를 처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에 각 노회에서 회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서울노회는 양정성 목사가 노회장으로 유임되고, 중앙노회장 강대하 목사가 새로 선출되었으며, 중부노회장 임정재 목사, 서부노회장 이순래 목사가 유임되고 경기노회장 민경구 목사가 새로 선출되고, 인천노회장 한성우 목사가 노회장으로 유임되고, 미국 워싱턴노회는 김정희 목사가 노회장으로, LA노회에 신현우 목사가 노회장으로 각각 유임되었다.



WCPM ‘2022 자랑스런 전문인선교 대상 시상식’

(사)한개협 세계CEO전문인선교회, 11월 5일 개최

(사)한개협 세계CEO전문인선교회 대표 박영민 목사, 이하 WCPM가 11월 5일 서울 연지동 연지교회관 대강당에서 ‘2022 자랑스런 전문인선교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WCPM은 이를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영감과 문화영감에 충성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기독교 정경인 CEO, 실업인, 의료인, 법조인, 교육인, 과학기술인,

사회사업인, 방송인, 문화예술인 등을 발굴해 매년 전문인선교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대상 수상자는 김정진 회장과 김경구 대표, 신일태 원장, 양유식 박사, 임정하 WCPM측은 “시상식을 통해 크리스찬 전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에 자비한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의 전문성과 선교의 전문성을

갖추는 각계각층의 CEO 전문인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한국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주도하며 세계선교를 리드해 나가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인선교 대상 시상식을 통해 한국교회에 전문인선교가 널리 흥망되고 활성화되어 백만 전문인선교사 사마가 열리며 한국교회에 개혁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예장열린총회, 제22회 정총 성료

복음에 의한 평화통일 추진과 안티세력에 적극 대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총)총회가 제22회 정기총회를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연지교회관 2층 두루이기념관에서 갖고 총회장에 이창수 목사를 유임시켰다.

“앞으로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 아래 열린 총회에서 총대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만수무강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나설 것

을 다짐했다. 평화통일과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사이비 등 언더 기독교 세력에 맞서 단단하게 세워 나갈 마음을 다진 통상기독교사적대예는 총무 정은숙 목사의 사회로 서기 이윤숙 목사의 대표기도, 회회독서기재정숙 목사의 성경봉독, 음악부장 임정자 목사의 특송 순으로 진행했다.

총회장 이명숙 목사는 사 60: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앞으로 빛을 발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도는 참된 빛이며 이 빛은 구원의 역사와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다”라며, “하나님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시기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고 강조했다.

계속된 예배는 회계 정복이 목사의 헌금기도, 총무 정은숙 목사의 광고 후 총회장 이명숙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3부 회무처리하는 의장 이명숙 목사의 사회로 서기 이윤숙 목사의 회무행정 후 성원이 되어 따라 의장 이명숙 목사가 개회사를 선언했다. 이어 총무 정은숙 목사의 회회보고서, 서기 이윤숙 목사의 서기보고, 회계 정복이 목사의 회계보고를 받은 후 각 부·각 노회 등의 보고는 유원모로 발표하고 신인건토의는 원일회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몽골 헌터스 축구팀 16일 후원의 밤 개최

몽골 ‘헌터스 축구단’ 축구 선교의 문을 열다



복음으로 하나 되자는 선교사명을 바탕으로 몽골복음화와 중앙 아시아를 넘어 세계복음화를 위해 힘 없이 달려고 있는 몽골 현지 선교법인 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한민회)장 김동근 장로는 몽골 정경에 복음을 심고자 몽골 비전 몽골한국경제지문화협회(회장 김동근)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김동근 장로는 몽골 축구팀 한 선수를 기동하여 준인연을 시작으로 7월 몽골 축구단 법인 헌터스 축구팀을 인수 계약하고 스포츠를 통한 선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헌터스축구단은 법인회장 김동근 장로는

인 알현처 목사라고 하고 있다.

축구단은 몽골 정식 FC법인으로 몽골축구협회(MFF(Mongolia Football Federation))과 아시아 및 호주지역의 전한적인 축구광경을 관할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Asian Football Confederation))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제축구협회(FIFA(Federation International Football Association))에 정식 등록되어 FIFA규정을 준수하며 활동하고 있는 구단이다.

구단주로 단장 김바스(O.K. Holding 대표), 한국과 몽골의 교민, 지도자, 사무원, 이사 등으로 인원 조성을 구성했으며, 몽골 현지 지도자 박사는 현재 몽골복음주의회 회장

생명의 말씀



이건호 목사

· 영락장로 중앙 총회장
· 월계세일교회 담임

시 118:22-23 "건축자의 바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는 행 4:11, 엡 2:20, 빌립 2:11에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부와 이방인의 환영하는 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퉁이의 머리 돌은 예수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마 21:42-44)

모든 말씀의 배후에 숨어 있는 권력은 구약성경에 대해 대한 서술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든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것이 건축될 수 있는 초석이며 모든 것이 의도되어 짜여졌는 그 바탕이 되는 모퉁이의 돌입니다. 이 완전을 거절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돌방이란 벽에 자기의 머리를 들이대는 것과 같고 그리스도를 반항하는 자는 결국 부서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 것은 어떤 건축자가 이 돌이 집을 세우는데 적절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소유가 없는 것으로 여겨 버렸는데 그 돌이 다른 건축자의 의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 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에 위치하여 두 개의 중심이 되는 벽을 서로 연결시켜 주며 이 돌에는 그 집의 건축자의 이름을 새겨

넣기도 하는데 전자는 유대인 루지는 이방인 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이런 정물은 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보내신 주의 종인 이방 모퉁이의 머리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8-32에 보면 한대인들을 가리켜 (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심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누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라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아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등하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몰다 하나님과 (33)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한대인들의 상태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로마에 바울 사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이곳에 주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따라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삼아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고쳐 세우셨습니다.

마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하니 말씀과 같이 신자들이 세상의 빛이니라 그러나 아직까지나 신자들의 빛은 참 빛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비취는 반사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마 5:15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중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취는 것과 같이"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 16:38-19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와 회사를 세우는 것은 이곳에 모퉁이 돌이 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

기독교영동회 북미 대회장 개회



한국기독교영동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뉴욕, 뉴저지, 토론토에서 북미와 대서양을 진행했다. 이번 성회는 대표회장 김용희 목사님과 증경회장 정경상 목사님 주강사로 나섰으며, 뉴저지 성도교회(담임 허성호 목사), 뉴욕 양무리교회(담임 이준성 목사), 토론토 한인교회에서 연합집회로 진행했다.

국제독립교회연합 목사안수식



국제독립교회연합(총회장 정인환 목사)은 지난 10월 17일(월) 서울 동작구 CTS아트리움에서 제18회 목사안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 23명이 평생 사명을 다짐하며 안수를 받고, 1명은 선교사로 안수받았다. 이날 예배에서 총회장 정인환 목사가 "독학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요구요 21:15-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전주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개관



전주 지역 근현대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전주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이 지난 10월 17일(금) 개관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근대 개회를 주도한 종교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위한 전주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은 전주시 완주군 전주수행원 인근에 들어섰으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강영우목회적 석은옥이사장 축출간



석은옥 강영우장회 이사장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 '석은옥, 주님만 믿고 살라'는 석은옥, 황복녀(지하)가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목사이자 미국 백악관 국정자문위원의 위원 등으로 일한 고령 유 박사를 나쁘지 않게 만든 전문가의 풀강, 변호사 크리스토퍼를 통해 풀려나 커리어 석은옥이사장의 삶이야기다.

불교신자였던 이정훈 교수 카이캄서 목사안수 받아

불교신자였던 울산대 이정훈 교수가 지난 10월 24일 경기도 분당 한빛교회에서 열린 카이캄 제46회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24일 오전 경기도 분당 한빛교회에서 열린 한국독립교회선교사대연합회(연합회장 김승우 목사, 카이캄) 제46회 목사안수식에서 총 122명이 안수를 받고 목사의 길로 들어선 가운데 이날 이정훈 교수도 안수를 받았다.

현재 울산대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교수, 영정학원(ELPI) 원장, 성정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PLIP(Practical Leadership Institute)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PLIP는 카이캄에 소속돼 있다.

이 교수는 처음 신학을 공부하기가 결심했을 때는 목사안수를 받지는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목사안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령 인도하심으로 감동받은 순간을 맞게 되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목사안수를 받은 것에 대해 "누구도 감동과 영감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교를 최선으로 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훈 교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교를 최선으로 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논평

한국교회연의회

교육 과정인가, 교육 개악 과정인가?

학생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를 개정하는데 교육부는 과목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교원 대에서 이런 과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 과정을 위한 공청회가 아닌, 교육 개악을 위한 공청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공청회의 취지대로 학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할 공청회는 일방적인, 소위 말하는 '썩고 지기' 식으로 진행되어 교육부와 집권 위원들에 대한 성토장이 되고 말았다. 왜 이런 공청회가 일방적인 공청회(公聽會) -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말을 갖추지 못하여 진행되었는지를 살펴 보자.

첫째는 '성(性)에 대한 편향된 개념을 심어주려 한다.

현재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양성평등이나, 집단적이지 않은 '성평등'이라는 기

념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다. 양성평등은 남'여'로 확실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양성평등은 사회적 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모호하고, 교착된 의도성을 가진 것이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 등 여러 가지 성에 대해 평등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는 학교법인(지인)의 발언을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었던 대목이다.

둘째는 전(전)33:1: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지 않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교육 과정에 찬하는 사람들을 패벌로 미리 정하고, 그들의 발언 때부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발언 기회가 적었다. 또 종합토론 시간에 기회를 주고도 고쳐서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끝내버렸다. 이런 공청회는 왜 하는가?

셋째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호응하지 못

중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업(성)기 학습, 응급처치와 생활습관과 성격적질 정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삭제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사회자가 계속 호응하지 못해서 진행하여, 제대로 된 의견 표명을 방해했다. 이런 일방적인 공청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가 보고 싶다.

넷째는 특정세력인 민주노동 복종을 한 전국특성고 노동조합 사람들이 나와 학부모들의 참여를 방해했다. 그리고 소란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도록 했다. 이 나라는 민주노동자 집단들이 존재하는 나라인가?

다섯째 자녀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혐오 세력으로 몰았다.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에게 '동성애 혐오 세력'이란 굴레를 씌우고, 교육 과정을 동조하는 언론에는 이런 학부모

모들에 대해 '반인권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의 공청회의 전체적 모습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미래의 주인공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한 차원에서 아예 방학중기로 작성을 하고, '공청회'라는 이름을 뒤집어씌워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고 작살판듯했다. 그래서 안 된다.

야당 참정 안는 중학생은 '동성애 성적정정권 성평등 우리들에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울 것도 없고 또 판공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만든 선생님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따져 볼 것은 패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현상에 대해 법률가들은 '동성애를 통한 성평등을 막아야 한다'고 걱정한다. 학부모들도 이제는 기꺼이 알아 담아야겠다는 결의가 촉발한다.

목양의 산책

조예환 목사//갈보리교회, 총회부흥사회 대표회장 역임, 한국기독교영동회 대표회장 역임

함께 할 한 사람

가까운 곳에 성서박물관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자주 모시고 간다. 그곳에 출애굽관을 둘러보면서 나는 정말 박막을 뚫은 듯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였다. 한 민족이 이동한 것인데 그들의 이동 경로가 길이 나고 흔적이 남았다. 그냥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걸어간다면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구름에서 인공을 영을 받게 하고 그들이 이동한 길들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시키며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분명한 그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움직이셨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저마다 움직이게 하신다. 우리는 때로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해 갈망 때도 있지만 나중에 완성될 때는 성령

한 한 작품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삶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움직이시니 나이다. 때로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림으로 완성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알지 못하지만,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간다. 목회는 때로 누가? 동의를 이해도 받지 못하는 외로운 길이다. 모세나 출애굽 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완성을 향해 보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착신도 못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완고했고 망상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모세에게 완성을 퍼부어 왔다.

그들 그들을 데리고 걸어간 광야 40년 모세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기에 그들에게 확신 있게 증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불신과 완고도 한몫이었던 것이다. 목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해하고 믿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계속 망상일 의 의심하고 완고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배치는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행한 것이 목회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확신이 없기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실망하고 완고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나는 설교 시간마다 세 가지 확신을 반복해서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 주신다.' 하나님은 주신 계획을 완수하라. 믿음은 확신이다. 그러다 불평하는 것만 배워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의 문제이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고 싶으랴. 아기는 당연히 부모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부모만 바라본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믿는 것이 안 될 수 있다. 기쁘게 주신다. 그리고 나눌 수 있다. 갈라지게 주신 본성은 오직 하나님

이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확신이었다.

그리고 아나 자신을 찾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그치게 한 것은 갈라미다.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다. 하나님이 싸우시라고 갈라미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갈라미에게 할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갈라미도 나아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신다. 그 믿음이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불투명했다. 또한 나만의 목적이 아니라 주신 계획을 이해하고 함께할 사람들 찾으며 함께 하기였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이해하고, 그리고 불평한 한 사람을 가리켜 가리켜 30년이나 지냈다. 하나님을 신뢰하듯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함께 할 사람 말이다. 모세가 부림이다. 모세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의 길은 그를 변화없이 끝까지 믿어오셨다. 좋은 여호수아에 있었기에 그는 철모로 승복한 사람이다. 신명령받은 오직 믿음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목사를 신

회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



신임 총회장김영복 목사(좌)와 직전 총회장 신대영 목사



신 임원진-우로부터 총회장김영복 목사, 부총회장김영준 목사, 총무 정진균 목사, 서기 임형순 목사, 재무 백영자 목사, 회계 조선남 목사

‘성령을 좇아 행하라’ (갈 5:16)

‘생명보다 더 귀중한 구원의 은총 영영히 누리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1차 정기총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1차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17일 10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 (갈 5:16)라는 주제로 열려 세계정세의 위기 속에 국가안보와 핵폐기 평화정착, 감염병 이후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무감각해진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본지는 71차 정기총회 광경을 화보로 엮는다 ... <편집자 주>



말씀을 증거하는 조용목 목사



기록서기



등록접수



은혜와진리교회의 김은경 순리스트의 은혜로운 찬양



선교사인사



은혜와진리교회의 김성혜·정영환 순리스트의 은혜로운 찬양



신임 지명회장

순서를 맡은 이들 - 총회 진행순서



근속패



30년 근속패 - 오경덕 목사 외 26명



감사패



감사패 - 사모회장 김귀순 사모



교단과 교회의 부흥 위해 기도로 헌신

전국사모연합회 제10차 정기총회 개최...신임회장에 신명희 사모 선임

전국사모연합회(회장 김귀순 사모)는 지난 10월 17일(토) 오후 2시 은혜와진리교회 아가페성전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신명희 사모를 선임하는 한편 한 회기 동안 사모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대성전에서 열린 교단 정기총회 개회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 후 곧바로 아가페성전으로 이동하여 전국사모연합회 제10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곧바로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각종 보고사항을 받고 회무를 처리한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신임회장에 신명희 사모(부강순복음

교회)를 선출했으며 일부 임원진을 개선했다. 교단 회장인 사모, 김양숙 사모, 전직회장 김양란 사모, 차장에 사모, 신동신 사모, 차추련 사모, 윤금자 사모, 감사(직전회장) 김귀순 사모, 1부회장 이윤수 사모, 2부회장 김숙향 사모, 총무 김세희 사모, 서기 내영숙 사모, 재무 조동숙 사모, 회계 손진영 사모



제주한마음교회에 사랑의 장기기증 동참 현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제주지부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에서는 지난 10월 22일(일) 오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제주지부 소속 조영중 담임목사의 안내로 장기기증서약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지원하는 성도님을 7명이 장기기증서약에 동참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8년 손수레를 끌고 가던 어느 할머니를 밀어주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장기기증을 통해



해 7명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떠난 故 김선웅 청년의 사재를 들고 많은 성도님들이 흠뻑으로 돌아갈 육체로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 또한 수혜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적극 동참했고 제주본부에서는 제주한마음교회에 사랑의 장기기증에 동참한 교회에는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었다.

정읍 '아버이사랑 효문화 축제' 구원의 복음증거

제주지방회 김건수 목사(제주한마음교회)는 10월 18일(토) 오전 10시 전북 정읍시에서 열리는 '아버이사랑 효문화 축제'에 주 강사로 초대되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전제에 초청된 분들이 대부분 다 초초령이신 데다가 불신자들이신 이리니 앞에서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주와 후원하는 분들이 각기 다기독단체와 자원봉사 선진 단체들이며 이리니 15년째 정읍을 다녔다. 생가는 목적이 오직 그분들의 '영혼구원'이기에 쉽고 간결한 복음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다행히 성령께서 전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으로 이리니들이 예수에 대해 꼭 믿어야



하느님에게 생명을 드렸고. 짧은 국악전양도 2곡 메들리로 찬양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약 1,500여 명 되는 이리니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제시해 드렸고 이리니께서 부디 간절히게 장수하시다가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생복락까지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했다.

대흥동 어르신 섬김 경로잔치 개최

대흥동교동협의회, 섬김과 사랑나눔

서울시 마포구청장 박강수와 대흥동주민센터(동장 김경희)는 제2회 노인의 날을 맞아 10월 20일 마포 K-비틀(여구장)에서 대흥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연우주관, 대흥동교동협의회(회장 장현일 목사), 대흥동지역사회협의체(위원장 정정미), 방위협의회(회장 지영호) 통장협의회(회장 권두신), 대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최재환)를 비롯한 지역사회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어르신 250명을 모시고 '대흥동 어르신 섬김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잔치는 자원봉사자(협의체)의 사랑의 섬김과

사랑·나눔을 테마로, 뮤지컬이동 동화회의 민요와 장구, 색소폰 연주, 우리가라 트롯트 가수의 공연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어르신 공경에 앞장서고 있는 대흥동은 서울시와 함께 대흥동교동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외롭고 힘든 저소득 어르신과 가정을 중심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동체복지모임을 준비하고 있어 그월들이 기대된다.



‘국가조찬기도회’ 매월 정례화 하기로

한국교회연합 제11-4차 임원회 개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성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10월 13일(목) 오후 1시 경기도 장릉원 주님의 사랑세례전교단 대표 서사리 목사(서서리 제1교회)를 임원 회를 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교연 ‘국가조찬기도회’를 매월 1일 정례화하는 한편, 제2회 총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임원회에서 앞서 지난 9월 장릉교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총회장과 총무(4부총장)를 비롯해 회원교단 1단체인 대표 50여 명이 인사하고 11월 1일 국가조찬기도회와 11월 17일 사랑나눔감동 대축제 행사 등 연례적인 제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회무차리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서사리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공동체적 조광수 목사(총회 총회장)가 대표기도를 인도했으며, 박배도로 목사(특수 후 대표회장 송태성 목사)가 ‘첫째로 사랑하라’ (마 22:37)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대표회장 송태성 목사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불쌍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자비 천주로 다녔다. 우리가 부요하든 가난하든 수가 많은 죄든 행함이 아니라든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교세가 큰가 작은가를 따지고 교회가 부요한가 가난한가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풍조가 생겼다. 겉으로 안타깝다며 ‘한교연이 지난해 총회부터 회원교단(단체)이 똑같이 분담금을 내고 총대 파송 등 회원의 권리와 똑같이 행사하도록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한교연은 누가 크다 작다, 누가 잘났다 못났다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모두 주님의 한 형제자매라는 연대의식으로 하나 되자’고 강조했다. 예배는 사무총장 최규수 목사의 광고와 바오로 목사(평화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가족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전도 아카데미 원장

충격의 전도현장에 서다!

“경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좋은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हम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생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삶의 길로만 다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송파기독교교회협의회(한영환 목사)에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있는 박성수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 100미터 이내에 아주 큰 교회 한 곳이 있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50여년에 이제 주일성수하는 성도가 20명이 남지 않습니다.

복음전도와 교회부흥의 소망은 크게 라는 말이 마음에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전도를 한 사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박영수 목사의 설교와 전도 영감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

“영적은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라는 말씀을 근거로 비가 오는 날에 우산에서 비스듬히 서서, 교회 인근 주차의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 환경, 시간을 관여 없이 즉시로 축복기도와 영성기도를 하는 모습

들이 제 영혼에 중 하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은 후 뒤에서 우리 교회 인근에서 박영수 목사와 함께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성시키는 전도를 할 때 영육간에 성령충만 하면서, 나도 이제 전도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지어졌습니다. 1명 이 즉시 영성을 하였고 각각 담당하는 성도들이 전화, 문자 등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는 곳마다 필요한 영혼을 만나게 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집들이 많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전도의 방법으로 영성전도 전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망인 교회부흥의 기적을 하주시는 것만 믿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족세전도 전도 양성교육을 충실히 받을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기독교교회 박성수 집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전도 대표총회

문화교회 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의 강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031692-4691, 0108730-2573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

생명나눔예배 통해 성도 426명 생명나눔 약속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제)사랑의장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10월 9일 주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새문안교회(담임 목사 이상학)에서 1-5부 예배에 걸쳐 생애나눔예배를 드리며 장기기증 서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에서는 2000년 17세의 아들 故 강석민 군이 뇌사 상태에 빠지자 장기기증을 결정해 9명의 생명을 살린 강호 목사의 영상을 먼저 시청하며 생명나눔의 감동을 나눴다.

이어 본부 이사장 박진택 목사가 장기기증의 의미와 희망등록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박 목사는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4만 7천여 명을 넘어서는데,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은 34%로 매우 저조하다”라며 “새문안교회 성도님



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장기부전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후 내 인생을 전국으로 만드는 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한 이상학 담임목사는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기뻐하고, 밤새에 감사할 만한 근자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라며 “우리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안으로 붙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했다.

또한 “오늘 장기기증 서약이 진행되는 때, 많은 성도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죽으면 땅에 묻힐 우리의 육체를 나눠 보지 못하던 이가 왔을 다시 보게 되고 신장이 망가져 투병하던 청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라는 뜻을 전하며 생명나눔에 함께할 것을 권면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7년 포항제철교수회 당시 이미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한 바 있다.

밀알복지재단-영풍문고, 시청각장애아동에 점자도서 기부

‘세계 흰지팡이의 날’ 맞아 영풍문고 4개 지점에서 동시 실시

밀알복지재단과 영풍문고가 10월15일 세계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아동에 점자도서와 촉각도서를 기부했다. 세계 흰지팡이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선포한 날이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능력까지 함께 손실된 장애인이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는 사소하고 정보 접근에 취약하다. 특히 시청각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환경의 부재로 성장과정에서 미처 배우지 못한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밀알복지재단과 영풍문고는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실되었지만 위대한 양자를 가진 헬렌켈러와 같은 위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아동 도서지원 캠페인 ‘헬렌켈러를 찾습니다’를 기획해 지난 8월1일부터 10월14일까지 전개했다.

캠페인은 영풍문고 4개점(분당 서현점, 종각점, 본점, 홍대점, 인천스퀘어점)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청각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점자도서 제작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시민들의 참여로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후원금이 모이며 점자도서

가 만들어졌다.

밀알복지재단과 영풍문고는 캠페인으로 마련된 후원금과 점자도서를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에 기부해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촉각도서 구입과 교육 자료에 사용하기로 했다.

홍유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장은 “캠페인을 통해 교육장에서 소외된 시청각장애아동의 현실을 알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점자도서는 시청각장애아동들이 어둠 밖의 세상을 만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더 편안하고, 좀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의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공사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석장벽)

- 2007. 10. 3 이천교회원회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월면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믿음으로 세가 같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호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단테 신곡을 보면 지옥 문 앞에 이 곳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심지어 지옥의 고통을 끝내기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안내지를 따라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첫 번째 방에는 탄식과 원망으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안내지의 답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소위 중립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에게 편하고 유익한 대로 살았던 독단적인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천국에 갔으나 천국에서는 이런 중립주의자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지옥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옥에서도 제일 전대의 대상이 되어 첫 번째 방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신앙인들 가운데 참 신앙인인지 불신앙인인지 분명하지 않은 이들을 위

게 보게 됩니다. 믿을 들어보면 신앙인 같은데 행동을 보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이 되는 알레는 신앙적인 믿을 들먹이지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자라뚝처럼 쏙 들어갑니다.

알라야 사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적당히 처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라야는 너희가 아닌 때까지 두 사이에서 마뭇 마뭇 하려느냐'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일 믿음과 세상 쾌락 사이에서 위태로운 행동입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만일 여호와의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자족에서 삼기된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초대시

전해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멈추지 않는 구원의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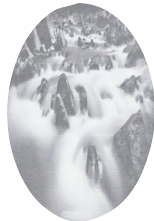
하나님의 계획은
막힘없이 흐르는 물줄기
걸림들이 있어도
나뭇가지의 휘방이 있어도
소용돌이 몰아친 속에서도
돌아 돌아가는 물줄기

주의 사랑 임은 자가
원수 된 자와 손을 잡아 화평하여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일하시며
섬없이 흘러가는..
흘러가는 물줄기

갈보리 언덕에서
사작된 마르지 않는 샘은
넘쳐나는 생명의 근원이되어
세상 곳곳의 마른 땅을 적시고
마른 샘에 스며들어

또 다른 깊은 우물들을 만들어내는
놀랍고도 놀라운 물줄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롬 11:33)
은 세상을 돌고 도는 생명의 물줄기
데미론 영혼들 찾아 갈증 채워 주사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놀랍고도 신비스런 물줄기



롬 11:35-36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속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스라엘이 속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으실지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멈춤이 없고 모든 자가 멸망이라.

사설

예배회복 위해 헌신 다짐

제7차 장기총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3년 만인 지난 10월 17일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개최되어 총회원들의 감격스러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아직 방위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지만 마스크 사이로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교회를 나누었다.

이런 총회에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3년간 헌신한 임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뒤를 이어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은 그동안 움츠러 들었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한사람 같은 것을 다짐했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비대면 예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대 혼돈의 시기를 맞이했다. 전 정권의 감염병을 빌미로 한 폭정으로 교회가 폐쇄되는 일까지도 겪어야 했고 속속무력으로 탄압을 받아가야만 했다. 그런 와중에도 앞과 뒤가 다른 모습으로 자유주의와 환관주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장로교계로 한국교회가 다시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좌파 정치권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교회를 또 다시 차별금지법이라는 족쇄로 얹어하려는 행동에 노심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본래의 모습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며 교회를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믿음을 사수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할 때 우리 교회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총회원 모두가 한결 같이 마음을 모으고, 단명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믿음의 자유를 수 있는 새 헌의 결집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임원들이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기도하고 아울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애김에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국민들을 위한 참된 지도자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큰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26번의 미사일 발사와 1번의 포사격을 했다. 북한이 지난 1984년 처음으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이후 가장 많은 도발을 한 것이다. 북한은 공공연히 '핵 보유국 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올해 10월에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2023-2025년 임기의 아시아 지역 이사국 자리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낙선했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도 못 미친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분담금 세계 9위인데, 방글라데시 정부 5년간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4년 연속 불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매우 엄중하고 냉혹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자충수와 자충전과 자기 최면에 걸린 듯 이상한 행동을 하며, 이런 위급한 상황들을 도외시키고 있다. 현재 야당의 대표들은 여러 가지 범죄의 의혹으로 수사당국에 의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삼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의혹, 발전기 드유음 의혹 사건 등이다. 이런 정치인이 또 있을까?

그런데 지난 9월에도 두 주간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했

는데, '현재 활동 중인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라는 질문에서, 현 야당 대표가 16.9%로 1위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하여 44%는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것이 정치인에 대한 여론이며, 숫자 못할만큼 현상이다.

국민들은 무엇 하나 신중하게 할 소인이 없는 가운데, 정치권의 내전 수준의 행태를 보면서 심한 절망감까지 안고 있다. 정치가 빨리 바뀌어야 한다. 선동으로 인구를 얻거나, 편입으로 쪼갬을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국민·지역으로 괴로움을 당해야 정치를 저지하겠는가?

우리 정치인들이 위급과 곤란에 관하여 매달려 있지 말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들의 대의(代議)를 실현해 나가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기 바란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앞자수일부족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조금이라도 그 맛을 잃으면 같이 단정하지 아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후 2:1-2)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및 문 :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현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일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재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1차 총회

총회장 김병목 목사 취임 감사예배



설교

총회장



조용묵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교단 정책위원장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교단 총회장

일시 2022년 11월 7일(월) 오전 11시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교회 : 031)443-3731

조·대·의·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님과 전직총회장님·선후배 동역자님들을 모시고 총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총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10. 25

총회장 김 병 목 목사

* 본 광고 지면으로 초대장을 대신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회원은 환경보호를 위해 정경화 사정합니다.